

광주·전남 270개 하천 4대강 정비 사업 포함

정종환 장관 “지역업체 참여 50% 이상 확대”

영산강과 섬진강에 직접 유입되는 광주·전남지역 내 270여 개의 국가·지방하천이 4대 강 살리기의 마스터 플랜에 포함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5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일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 범위 외 4대 강 이외에도 섬진강 및 4대 강에 직접 유입되는 국가·지방하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방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 참석, 4대 강 살리기 사업 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4대 강 정비사업이 확대될 경우 전남에서는 영산강에 직접 유입되는 하

천 163개가 사업대상에 포함된다. 또 섬진강 수계에서는 국가하천으로 보성강 1개와 한천천 등 지방하천 103개가 정비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국가하천 정비와 관련해 올 하반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추가예산 1조 원이 요구된다”며 “지방하천의 경우 설계가 이미 완료돼 즉시 착수가 가능한 사업은 추경에 반영해 조기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하천 사업비로는 총 5천억 원의 예산 지원이 요구되는데 이중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3천억 원,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2천억

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13조9천억 원으로 알려졌던 4대 강 정비의 총 사업비는 15조4천억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또 4대 강 살리기와 연계해 광주·함평 등 전국의 지방하천 50곳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156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하천 정비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광주·전남에서는 광양 동천(3km), 장성 단광천(5km), 구례 서시천(2km), 곡성 학정천(2km), 영암 군서천(6.7km) 등 5곳이 조기사업착수 구간으로 선정됐다. 국토해양부는 하반기까지 기본 설계를 마치고 예산을 확보해 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



이력서도 최대한 정성스럽게

4일 광주시 북구 북동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열린 ‘빈 일자리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장에서 이력서를 작성하는 있는 구직자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16개 업체에서 159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300여명 가까운 시민들이 몰려 취업난을 실감케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중앙예속 막아야” 道 존치 vs 폐지 “행정효율 높여야”

지방행정체제 개편 5차 토론회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주된 흐름인 도(道)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지상중계 5면>
특히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영산강 뱃길 복원과 함께 물 저장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의회 주관으로 4일 오후 광주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행정체제 개편 쟁점과 과제, 그리고 광주·전남의 변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핵심적인 논의 대상인 ‘도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광양)은 발제를 통해 “국가 경쟁력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간 화합과 지방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 행정체

제를 단순화하고 행정구역의 광역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지방행정체제 모델로 ‘광역민관’을 제시했다. 경제자유구역인 여수·순천·광양·하동지역과 그 배후도시인 구례·남평을 합치면 영·호남이라는 지역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경제통합을 이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정순관 순천대 교수는 광역단체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개입을 완화하고, 새로 생겨나는 기능과 권한이 중앙정부로 집중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며 광역자치단체의 폐지를 반대했다. 특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지역 갈등·불균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가 지역 편향적 정당구조와 맞물리면 정부간 협력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도를 폐지하기 보다 연방제국의 주정부와 단일국가의 광역자치단체의 중간 성격의 기능을 보완하는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토론회는 광주일보를 비롯한 9개 지역 대표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 지방신문협회와 희망제작소가 기획한 ‘행정체제 개편 논란, 현상의 목소리를 통해 대안을 찾다’를 주제로 한 전국 순회 행사로, 지난 1월22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북·강원·경기도에 이어 다섯번째로 열렸다.
/서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분기 성장률 최악뎀 -8%

한은·KDI 등 환란 수준 추락 전망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0년 전 환란 당시의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또 경기 회복 시점은 올해 하반기보다는 내년으로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4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 예측기관들은 기관에 따라 1분기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5~8% 정도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환란 당시인 1998년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7.9%, 3분기 -8.1%, 4분기 -6.0% 등이었다. 지난해 4분기는 -3.4%로 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애초 올해 연간 경제성장

률이 2.4%에 이를 것으로 봤으나 -2~-4% 정도로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1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로는 -7~-8%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KDI의 이재준 연구위원은 “1분기 성장률은 -4~-5%가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의 이근태 연구위원은 “1분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5~-6%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세계 실물경제의 하강이 본격화되고 수출부진이 내수경기에 영향을 주면서 하강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1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이삼태 총재는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면서 “성장률이 -1%부터 -4%까지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게 나온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윤증현 “봄은 멀지 않았다”

위기대체회의서 의연한 대처 강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세계 경제가 다시 흔들리면서 국내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위기대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경제가 진정되는가 했더니 동유럽의 국가부도 위기를 시작으로 미국 상업은행의 국유화 등 여러가지 불안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당초에 계획한 대로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무역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내고 순유출되며 외국인 채권투자가 순유입으로 전환되는 등 우리 경제의 앞날을 밝게 하는 뉴스도 있다”며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은 현재 막바지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이런 시일 내에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잡 세어링을 제2의 금모으기 운동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엔고 현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녹색뉴딜 세부사항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 기원
2009 광주 희망콘서트

3월 28일(토) 오후 7시 / 광주무등경기장(축구장)
문의 / 062-220-0541 1544-0943

北-유엔시 내일 장성급 2차회담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이 지난 2일에 이어 오는 6일 제16차 장성급 회담을 열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장성급회담에는 지난 2일과 마찬가지로 유엔사 부참모장인 조니 와이너 공군소장과 북한군 관측소 소장인 양곡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5일 오전 10시에는 미군 대령인 커트 테일러 유엔사 군사정전 위 비서장(대령)과 북한군 관문점대 표부의 광영훈 대위가 접촉을 갖고 의제 조율과 장성급회담 개최 시간

과 참석자 등을 확정한다. 이번 장성급회담은 지난 2일 유엔사-북한군간 제15차 장성급회담에서 양측의 합의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북측은 2일 회담에서 이달 9~20일 열리는 키리졸브 한미 군사연습 중단을 촉구, 32분만에 종료된 바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한미 군사연습을 중단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별다른 결과물이 없을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

이정일 전남일보회장 별세

제16·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정일 전남일보 회장이 4일 오후 6시10분께 서울 강남구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2세.
(관련기사 16면)
고인은 조선내화 부사장, 동일상업 회장, 클럽 900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광주·전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지난 1989년 전남일보사를 설립해 2000년 정계 입문 전까지 전남일보사 부사장, 사장, 회장을 지내며 언론 참담에 이바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고인은 지난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전남·진도지역구에서 당선됐으며 17대 선거에서도 당선, 재선 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빈소는 서울 아산중앙병원에 마련됐다. 영결식은 전남일보사 회장으로 6일 오전 4시10분 아산중앙병원에서 거행되며, 노제는 6일 오전 10시30분 전남일보사 사옥에서 지낸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